

가을이 성큼 도약의 발걸음도 성큼

높아진 하늘만큼 우리의 꿈도 그렇게 착실히 자라고 있나요?
풍성한 햇과일들만큼 노력의 성과들을 잘 수확하고 있나요?
이 가을, 도약의 계절로 만들고 계신가요?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쏟은 열정이 탄실하게 열매 맺는 시간
세아인 모두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SēAH



세아인들
2017 SEP + OCT Vol. 371

세아인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2017 SEP + OCT Vol. 371





Cover Story

산골짜기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콧노래라도 부르며 단풍잎 우거진 숲길을 산책하고픈 계절. 우리에게 가을은 소풍의 계절이지만 어쩌면 다람쥐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바쁜 시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곤궁함을 끄떡없이 이겨내려면 지금 분주히 도토리를 모아두어야 하니까요. 배움도 그런 게 아닐까요? 현장에서 익힌 경험, 선배에게 들은 조언, 깊이 사색하며 읽은 책 한 권이 위기와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소중한 양식이 되어줄 거예요. 하늘이 자꾸만 한 뼘씩 높아집니다. 다양한 배움을 통해 우리의 내일도 조금씩 자라나는 가을입니다.

Rising SeAH

- 04

테마 에세이

스스로를 반추해보는 만추(晩秋)
- 06

테마 초대석

김병완 작가
- 10

테마 스토리

직장인의 공부법
- 14

세아는 지금

2017년 하반기 세아 세미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West Coast Spiral Pipe 상업 생산 개시
- 22

타임머신

100년 세아를 향한 교육 대계
- 26

글로벌 세아인

Pos-SeAH Steel Wire (Thailand) 생산팀

Together SeAH

- 30

팀 플레이

세아제강 포항공장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 TF팀
- 34

특별한 만남

세아 ESAB 생산팀 김경준, 김인수 형제
- 38

더불어 사는 세상

가이드메이트
- 42

해피 패밀리

과일청 만들기
- 46

컬처 가이드

모차르트에 대한 고찰
- 48

SeAH News
- 49

People News
- 50

Post Box
- 발행일** 2017년 10월 24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5 **기획·디자인** (주)더윤호 02-733-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A one Studio 02-553-4430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반추해보는 만추(晩秋)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에는 몰입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의문을 갖고 반추하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느 예술 작품보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원래 생각이란 빠른 정답을 내놓는 일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헤아려 판단하기 위한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포함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가끔은 가만히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보면 어떨까요?

하늘은 드높아지고 대지는 무르익는 계절

가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니까요.

지금 제대로 제 길을 걷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답을 구하는 동안 그 안에서 변화를 찾고,

한 걸음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차곡차곡 생각을 쌓아가는 지혜의 시간

배움을 통해 더 알찬 자신을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공부는 최고의 생존 전략 김병완 작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공부’는 뜨거운 화두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정답을 외우기만 하고 가르쳐준 대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쟁 사회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시대. 김병완 작가는 이런 때일수록 ‘진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시절의 공부와 직장인의 공부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10대나 20대 중반까지 학교 공부는 항상 모범답안을 원합니다. 가장 분명한 답을 원하고 정해진 지식을 요구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공부는 무수히 많은 답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답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공부입니다. 항상 우회로를 생각해야 하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공부입니다. 학창시절의 공부가 사회인이 되기 위해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것에 불과한 ‘얕’의 공부라면 직장인의 공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삶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이끄는 사고가 어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를 다양한 사람들의 사상과 견해를 토대로 성찰하고 고찰합니다. 그 결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볼 수 있어야 하고 멀리 내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려받은 DNA나 IQ 등 공부 역량마저도 타고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부의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공부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총명한 두뇌를 타고 난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남들이 알게 모르게 탁월한 방법으로 자신을 지독하게 훈련시킨 결과,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나빠 공부와 인연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공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더 해야 하고,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Runner's High에 빚댄 Learner's High라는 개념이 재미있었습니다. '공부는 고통'이라고만 여기는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세요.

달리기를 할 때 30분 전후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쾌감 때문에 달리기 중독된 사람들은 비가 내려도 우산을 든 채 달리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도 처음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느 정도 몰입되면 공부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것도 없다는 느낌이 드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쾌감, 러너스 하이(Learner's High)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처음 스키를 배울 때는 많이 넘어지고 힘들지만 스키 타는 법을 완전히 익히면 초급자일 때는 상상조차 못 하는 스키의 묘미를 발견하게 되듯이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공부는 즐거움이 됩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그날그날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공부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고, 그날그날 주어진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장님이 그냥 한발 한발 내디디며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길게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변혁의 시대를 넘어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프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생각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못 보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끝없이 배우고 지독하게 공부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에 성공할 인재이며 프로인 것입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격변의 사회, 세계적인 불황, 무한경쟁 시대 최고의 생존 전략은 진짜 공부입니다.

여러 선인(先人)들의 공부법 가운데 세아인들에게 추천하고픈 공부법이 있다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서 공부법을 추천합니다. 초서 공부법은 책의 모든 내용을 무조건 베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대목만 뽑아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 다산 선생의 초서법이 더 주목받는 것은 그것이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공부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은 다방면의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공부, 즉 다독입니다. 다독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내다보는 혜안이나 통찰력이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해야 그 속에서 우리만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으면 자신의 생각이 편협해질 수밖에 없죠. 제대로 공부하려는 사람은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퀀텀 독서법은 다독을 위한 최고의 독서법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소요된다면 다독을 하기 어렵고, 다양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접할 수 없죠. 하지만 많은 책을 빨리 읽고 소화시키는 퀀텀 독서법을 익히면 단 3주 만에 독서력을 두 세 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세아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음을 이룰 수 있었고 하해(河海: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었다'. 초나라 이사가 쓴 명문 간촉객서(諫逐客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따지고 보면 꾸준히 조금씩 축적해나간 공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생을 길게 내다보고 소처럼 한결음씩 걸어나갈 수 있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독서를 하는 공부입니다. 한 권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 천 권이 되면 인생을 바꾸고도 남는 위대한 힘이 생깁니다.

Profile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6시그마 전문가로 재직했다. 3년 동안 1만 권에 달하는 책을 읽고, 이후 <김병환의 초의식 독서법>,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팔린 독서법 책인 <시간에 1권, 퀀텀독서법> 등을 비롯해 3년 동안 60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EBS FM 라디오 프로그램 '김병환의 고전불패'를 진행했으며, 집필과 강연 그리고 책 쓰기/독서법 학교인 김병환 칼리지를 통해 공부와 책 쓰기 및 책 읽기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회사에서 배우는 샐러던트 직장인의 공부법

회사는 능력 있는 인재를 원한다.

따라서 회사에 들어가도 꾸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되면 학창시절처럼

매일 몇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언제 공부하고,

어떻게 배움을 얻어야 할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면 도태하게 되는 변화의 시대. 공부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물론 '바빠서'라는 건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서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애당초 한가한 직장인은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간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누구에게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공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먼저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무의미한 술자리나 출퇴근길에 즐겨 하던 휴대폰 게임 시간을 줄이는 등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만 버려도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불필요한 습관으로 공부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SWOT 분석 통한 공부 방향 설정

그렇다고 무작정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가, 그 공부의 성과가 얼마나 성과로 연결되는가가 관건. 흡수하고 싶은 지식은 산더미 같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학창시절의 공부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직장인의 공부는 실제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1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던 학창시절의 공부와 달리 직장인의 공부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회화 구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SWOT 분석 방법을 공부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다.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4가지 요소로 나누어 분석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 충분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앞으로 어떤 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지를 파악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모두가 나의 스승

정말로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학창시절에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었지만 직장인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스승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항상 공부하며 자기계발에 힘쓰는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주는 상사 등 주위를 둘러보면 스승으로 삼을만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무엇보다 선배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된다. 일을 잘하는 선배에게 업무 노하우를 배우면 좀더 빨리 업무에 익숙해진다. 이때 무조건 선배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실력, 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반대로 남에게 무언가를 배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하 직원에게 배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하직원이나 후배의 불만을 단순히 불멘소리로 듣기보다는 건설적인 아이디어의 소재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동료, 현장, 거래처에게 배운다

대화하기 편한 입사 동기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도 좋다. 다른 부서에 소속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사 전체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업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혼자서는 찾기 힘든 문제점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해결 방안도 더 빨리 도출할 수 있다.

연수나 세미나 역시 좋은 배움의 기회다. 연수나 세미나 등에서 익힌 체계적인 업무 요령이나 지식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튼튼한 뼈대가 된다. 동료나 선배의 가르침을 통해 실천적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 해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

현장 공부의 중요성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한다. 모든 의문과 답이 현장에 있다고 한다. 지식이 가장 생생하게 작동하는 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현장에 가야 비로소 해결책이 나온다. 단순히 정보를 머리에 입력하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모두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현장이다.

고객사, 협력사 등 거래처에서도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업계 동향을 비롯하여 해당 업체의 전문 지식을 흡수하며 자연스레 업무 노하우가 쌓인다.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과의 교섭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배가된다. 고객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이제까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값진 경험도 얻게 된다.



교육으로 힘을 키우는 기업들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 스튜디오는 1996년 픽사 대학(Pixar University)을 설립했다. 에드 카트멀 사장이 대생 클래스를 만들면서 시작한 이 대학은 회화, 조각, 연기, 발레 등을 비롯해 글쓰기, 문학, 철학 등 100여 개가 넘는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직원에게 주당 4시간의 자유로운 교육 시간을 보장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이후 픽사에서 제작되는 영화 시나리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됐으며, 픽사가 제작한 미니언즈(2015), 겨울왕국(2013), 토이스토리3(2010)는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매출 순위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평균은 끝났다(The Average is Over)’는 말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평균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경쟁력을 지니기 어렵다. 공부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배움만큼 인생에 깊이를 더하는 일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없다. 공부는 지식을 끌어올려주고, 내공을 쌓아주며 자기성찰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작금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참고 서적 후루카와 히로노리 <성과를 높이는 직장인의 공부법>



두려움 없는 전진

2017년 하반기 세아 세미나

철강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성장을 위해 세아는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세아의 각 계열사 임원 및 차·부장급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늘을 되새기고

내일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

지난 8월 24일, 세아의 각 계열사 CEO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서 2017년 하반기 세아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도레이 첨단소재 이영관 회장의 특강을 비롯해 세아의 올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경영 전망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레이가 변신을 거듭하며 90년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미나 1부의 강연자로 나선 이영관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세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힌트를 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세계적인 첨단재료 기업인 일본 도레이그룹의 자회사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소재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까지 다양한 산업소재를 생산하는 화학소재 전문기업이다.

불굴의 집념으로

핵심사업에 역량 집중

“도레이는 ‘소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R&D 철학을 지닌 기술 집약 집단입니다.”

91년 역사를 가진 건실한 그룹, 4만 6천 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는 세계적 회사, 이 회장은 도레이를 이렇게 소개했다.

세계 제일의 필름 메이커이자 종합 섬유 메이커인 도레이의 글로벌 No.1 비즈니스는 무려 31개 분야에 이른다.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이영관 회장은 이에 대해 ‘극한 추구의 DNA’라고 말한다.

도레이는 1961년 아크릴 기반의 탄소 섬유 개발을 시작해 1971년 생산을 개시했다. 탄소 섬유의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도레이는 R&D 비용만 1조 원 넘게 투입했으며, 지속적인 적자에도 사업을 이어왔다. 현재 도레이의 탄소 섬유는 보잉 787의 기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풍력



발전기의 날개 제조에 쓰이는 등 친환경 미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근무시간의 20%를 자유재량 연구에 할애하는 도레이의 20% 룰은 3M의 15% 룰, 구글의 20% 룰보다 훨씬 앞서 시행됐다.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로 이름난 도레이의 구미 연구소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육성을 위해 획기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도레이의 기업 문화는 혁신 소재의 개발과 사업의 성과로 이어졌다. 2006년 도레이는 유니클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재 유니클로의 히트텍과 에어리즘, 울트라 라이트다운 패딩은 도레이의 섬유 소재로 만들어진다. 도레이는 또한 자사의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일본 최대 통신 회사 NTT 도코모와 함께 웨어러블 의료 기기 시장에도 진출했다.

신입사원에서 회장까지 44년의 열정

한발 앞선 기술 개발, 혁신적 공장 설계, 세계 최고의 품질과 원가 경쟁력, 투명

하게 소통하는 조직 문화 등 도레이의 90년 성장 DNA가 연이어 소개됐다. 이영관 회장은 초과 영업이익의 일부 금액으로 ‘노사화합의 탑’을 세운 일화를 이야기하며 ‘전 임직원이 의기투합하면 기적도 만든다’고 강조했다.

열정의 리더십도 도레이첨단소재의 성장 비결 중 하나. 1972년 도레이첨단소재의 전신인 제일합섬에 입사한 이영관 회장은 1994년 경영기획 담당이사를 거쳐 1999년 도레이첨단산업의 사장으로 승진했고, 2013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현장에서 보낸 21년. 그는 ‘나를 성장시킨 비결은 주인 의식’이라고 말하며 ‘월급쟁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라고 덧붙였다. 도레이첨단소재가 폴리에스터 필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당시, 기술 도입의 좌절과 가동 초기 산처럼 쌓이는 불량품, 고객 클레임 등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끈기로 직원들을 독려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이어갔다. 평면 TV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필름은 당시만 해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기술 개발의 성공을 발판으로 도레이첨단소재는 크게 도약했으며 현재 해당

분야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우뚝 섰다. 이영관 회장은 2020년까지 도레이첨단소재의 비전을 밝히며 ‘최고의 소재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 딛고 일궈낸 성과

세미나의 2부는 세아홀딩스 서영범 대표의 진행으로 상반기 경영활동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자국 이익 우선 정책, 중국의 환경 규제, 각종 정치 안보 이슈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전개되었지만, 세아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및 목표 대비 초과 매출을 달성해냈다. 주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를 확대했으며, 글로벌 고객을 늘리며 수출도 대폭 신장됐다. 해외 생산 거점의 확대도 추진했다. 특히 SSUSA는 인수 작업을 최종 완료하고 본격 가동 중이다. 각 계열사별로 원가혁신 활동을 비롯하여 성장 동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증설 및 R&D 투자 등이 실시됐으며, 이외에도 명소 활동, 사회공헌 활동, 탄소배출 저감 활동 등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일터, 올바른 제품을 추구하는 세아의 지속가능경영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어 서 대표는 세아가 직면한 위협적인 경영 환경에 대해 언급하며 다양한 도전 과제를 꼽았다. 그는 철강 제품의 수입량 증가 등을 비롯한 통상 환경, 전방 산업의 회복 난망,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 거센 도전이 세아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최적화된 미국의 전기로 회사 BRS사의 플렉스 밀(Flex Mill)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며, 철강 생태계가 직면한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및 제조 혁신 경쟁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쟁력만 있다면 성장의 제약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나아갑시다.” 서영범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향후 2~3년간 고객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자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 세아홀딩스 감사실 천정철 전무가 내부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천 전무는 정보 은폐, 프로세스 부재 및 미준수, 허위 보고, 윤리의식 부재 등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명한 내부 통제는 중앙 집권적 지휘나 일반적 강요가 아닌 책임 경영과 약속 경영이라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건강한 기업 체질 강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난을 친구 삼아

더욱 강해지는 세아로

“불확실한 시장환경이 지속되며 힘겹게 쌓아 올린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해외 시장을 확보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날 세미나에서 이순형 회장은 이 같은 물음을 통해 경영진들에게 숙제를 제시하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인 만큼 각사의 실정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선전한 각 사 경영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하반기 경영 계획을 상향 수정하여 다시 한번 필달의 의지로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좋았던 시절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를 잠들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우리의 친구이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순형 회장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 한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 잘 극복하여 더욱 강해지는 세아를 만들어나가자’고 전했다.

충주시민들과 함께한 가을밤 사랑노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충주시를 다시 찾았다. 2015년 5월 14일 이후 2년 만이다. 초가을의 정취가 가득했던 지난 9월 20일, 많은 충주 시민들이 공연장을 찾아 음악으로 표현된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만끽했다.



산들바람이 산들 부는 가을밤에

제98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 중원문화의 중심이자 예향의 고장, 무엇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시작된 곳, 충주에서 또 한 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지난 9월 20일,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충주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를 공동주최하고, 충주시민들을 가을밤 음악의 세계로 초대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는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 및 후원회장을 역임하며 순수문화예술에 깊은 애정을 쏟은

故이운형 세아그룹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많은 이들이 오페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기획한 지역음악회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는 그간 군산, 창원 등에서 개최됐으며, 다양한 레퍼토리와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어느덧 국내 대표 메세나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음악회에 앞서 조길형 충주시장과 세아이운형문화재단 박익숙 이사장, 세아특수강 유을봉 대표 및 충주시 관계자들은 짧게 담소를 나누었다. 조길형 시장은 지역 예술 역량 강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박익숙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굽이굽이 깊은 사랑, 내 사랑

이번 음악회는 사랑을 주제로 구성됐다. 꿈꾸는 듯 설레는 사랑, 가슴 저미는 슬픈 사랑, 영원 불멸한 사랑, 줄다리기하듯 밀고 당기는 사랑 등 여러 사랑의 모습과 감정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로 펼쳐졌다. 특히 3부로 구성된 이날 공연은 클래식, 국악, 뮤지컬 등 장르별 무대 연출을 달리하며 동서양의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명곡

들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1부 무대에서는 충남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윤승업의 지휘와 코리아 쿵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 소프라노 강혜정과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인재인 테너 김승직, 박기훈, 신현식이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묘약> 등 오페라 사랑 노래로 정통 클래식의 진수를 선보였다.

2부 무대는 한국 국악계의 히로인 오정해가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너영나영', <춘향전> 중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을 애절한 목소리로 소화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3부는 뮤지컬 배우 김소현, 손준호 부부가

<오페라의 유령>의 명곡들을 열창하며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관객들의 열띤 환호 속에서 '사랑의 찬가', '네순 도르마(Nessun Dorma)' 등 앙코르 무대가 이어졌으며, 이날 출연진 전원은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You Raise Me Up'을 부르며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와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인재들이 함께 화합의 무대를 만들었다.

산들바람이 부는 가을밤, 사랑의 노래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왔을까? 음악회가 끝난 후에 팔짱을 끼고, 손을 맞잡고 공연장을 떠나는 가족과 연인들의 발걸음이 한결 더 다정해 보인다.



유통, 판매를 넘어 제조업체로

West Coast Spiral Pipe 상업 생산 개시

미국 서부에 위치한 세아제강의 해외 법인 State Pipe & Supply(이후 SP&S)가 Spiral Pipe 제조 설비 도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나섰다. 지난 8월 15일 SP&S는 West Coast Spiral Pipe(이후 WCSP)의 준공을 기념하며 미국 시장 내 Spiral Pipe 제조업체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Spiral Pipe 제조 설비 도입

SP&S가 WCSP의 준공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Spiral Pipe 제품 생산에 나섰다. SP&S의 이번 Spiral 조관라인 투자는 그간 판매 및 유통 중심의 법인 활동을 제조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세아그룹 주요 전략의 일환이다.

세아는 1967년 국내 최초로 미국에 강관을 수출하기 시작해, 1978년 미국 판매 법인 SSA를 설립하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90년 세아의 가족이 된 SP&S는 1997년 West Coast Pipe(이후 WCP)를 인수하며 미국 서부 지역에서 판매 및 가공업체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여기에 WCSP 부문을 신설하고 Spiral 조관 설비 도입함으로써 Spiral Pipe 제조업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우수한 한국 강관 제조사의 타이틀을 넘어 미국 강관 제조사로

지난해 말, 세아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강관 제조업체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텍사스 주 휴스턴 지역에 제조법인 SeAH Steel USA를 설립하고 현지 강관 제조 및 후처리 공장을 인수한 바 있다. 북미 생산 거점 마련은 단순히 최근 불안정한 무역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세아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려온 큰 그림이다. 세아는 '대한민국 강관 제조사'를 넘어 미국 강관 제조업체

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Spiral 조관 설비 도입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이로써 세아제강은 미국 내에 두 개의 제조법인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두 개의 공장은 모두 상업 생산에 돌입한 상태다.

기술력, 경험 바탕으로 성장 이끌어낼 것

세아제강은 1990년에 Spiral 조관을 시작해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WCP 역시 미국 내에서 Spiral Pipe에 대한 시멘트 라이닝(Cement Lining) 가공과 판매를 통해 관련 시장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며 수요가들과 후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세아제강과 WCP의 기술력,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WCSP는 Spiral 제품 공급자가 많지 않은 서부 지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P&S와



세아제강 구성원이 협력을 통해 조속한 설비 안정화 및 상업생산 돌입을 일궈내며 세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양한 계열사에 속한 세아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아낌없이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WCSP가 북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스파이럴 강관 제조사로 성장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세아제강 이주성 전무는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임직원들의 노력과 성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배움의 일터

100년 세아를 향한 교육 대계

세아는 일찍부터 지속적인 기업 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의 잠재력과 실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훈련에도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창조적, 전문적 인재를 키워온 세아의 발자취를 문성수 고문의 이야기를 통해 되짚어본다.

사원능력개발 교육(1976년)



“

부산파이프에 근무하면서 순환 보직을 통해 여러 방면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일본 선진 기업 해외 연수를 비롯해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지식을 얻었고,

인생을 바꿀만한 중요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삶의 지혜도 얻었죠.

세아에게 저는 늘 빗쟁이입니다. 세아에서 형성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깐요.”

문성수 고문 前 세아제강 포항공장 노무부장

업무 능력 배양 위한 교육 체계 수립

부산파이프는 창업 후 20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늘어났다. 종업원 수도 1961년 28명에서 1979년에는 1,500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사원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1월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하여 좀더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사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부산파이프의 사원교육은 자기계발과 업무 능력 향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재를 타개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인 행동인, 적극적인 사고로 실천하는 능동적인 행동인, 그리고 직무에 1인자가 되는 전문인 양성을 교육 지표로 삼았다.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교육제도가 차례로 마련됐다. 먼저 1982년 11월 본사 및 서울공장의 과·차장급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첫 MTP(Management Training Program) 교육이 실시됐다. 이 교육은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관리의 기능과 목적, 부하 육성과 계발, 문제해결과 창조, 리더십 등으로 구성되었다. MTP 교육은 1991년까지 1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부산파이프 및 관계회사 전 간부사원의 필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중견사원을 위한 BMTP(Basic Management Training Program) 교육도 1983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중견 사원의 업무지식, 자기계발 등 관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교육은 1993년 18차 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중견사원의 필수 교육과정이 되었다. 이어 1986년 11월에는 WSTC(Workman-Ship Training Course; 사원 기본태도 개발과정) 교육이 시행됐다. 자체 양성한 강사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교육은 1988년까지 반장급 이하 680여 명의 전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1990년 9월에는 관리부 문에서의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임원 및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한 K-T과정을 도입하였다.



문성수 고문은 1974년 부산철관공업주식회사 생산 관리부에 입사해 본사 품질관리 과장, 기획실 실장, 포항공장 노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내강사로서 MTP 교육을 지도하였으며 1989년 퇴직한 이후 <기업의 성공적 발전 모델>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기술 제휴, 해외 연수로 선진 기술 익히

창사 직후부터 부산파이프는 선진 회사들과의 기술 제휴와 자문, 해외 연수 등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했다.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일본 가와사키제철 해외 연수가 실시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반장급 현장사원들은 귀국 후 사례발표를 통해 현지 연수에서 체득한 경험과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기술 공유는 물론 현장의 작업 분위기 개선에 기여했다.

당시 부산파이프는 20인치 조관 기술을 보유하며 국내에서 높은 수준의 중경관 제조기술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부산파이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6인치 조관 기술을 갖고 있던 가와사키제철 연수를 통해 체계적인 기술을 익혔다. 연수 참가자들은 1분당 50m의 중경관을 제조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기술 격차를 실감하는 한편 이후 부산파이프 공정 개선에 대한 신선한 자극도 받았다.

1982년에는 일본 철강메이커인 고베제강 연수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부산파이프는 신 설비 운영 능력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독일 AEG-Elotherm 등 세계 유수의 철강메이커에서도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

1984년 초 스웨덴의 에코파이프(Eco Pipe)사와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한 부산파이프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으로부터 신 설비를 도입하고, 그해 11월 1일 단열이중관 사업부를 발족시켰다. 부산파이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단열이중관은 저렴한 공사비는 물론



중견사원 BMTP교육(1989년) / 가와사키제철 그룹 방문(1992년)

매립관의 수명을 월등히 연장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1989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한 제6차 선상대학에 부산파이프 사원 10명이 참석했다. 사무, 기능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상대학은 일본 내 우수 기업체 견학과 선내 세미나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런가 하면 부산파이프는 외부 명사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강연회도 개최했다. 1987년, 부산파이프는 글로벌 기업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통해 원가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원가를 단순히 산출의 대상이 아닌 절감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 / 박람회 참가를 배움의 기회로
활발한 전시 참여도 이루어졌다. 1984년 4월, 부산파이프는 제6회 건축자재 전시회에 참여하며 부산파이프의 API 강관 등 제품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편 동관 제품의 출현으로 인한 탄소강 강관의 위기에 대응했다. 첫 전시 참가를 위해 부산파이프는 250종의 샘플을 제작하는 등 제품 홍보에 열의를 보였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에너지 기자재전에 참가해 스웨덴 에코파이프와 기술 제휴로 만든 단열이중관 제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부산파이프는 1992년 한국 우수 상품 종합 전시회 및 에너지 기자재전, 1993년 서울 국제 플랜트 배관기자재전,



에너지 기자재전 참가(1992년)



베트남 춘계 국제 박람회 참가(1994년)
Steel Tech 참가(1997년)

1994년 에너지 전시회, 1994년 베트남 춘계 국제 박람회 등에 참가하며 경쟁력 있는 제품 및 품질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 및 트렌드를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

지속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
세아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 양성을 위해 2008년 ‘차세대 리더 양성 교육과정(SPEC)’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해 7월 1일부터 8주간에 걸쳐 진행된 SPEC에는 세아그룹 9개 계열사에서 21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SPEC은 세아의 차세대 리더들에게 필요한 12개 핵심과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총 256시간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경영트렌드의 변화

및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함께 진행하여 다방면에 걸친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했다. 세아그룹은 또 다른 인재육성 제도로 2008년부터 성과관리 우수자 교육을 시행하였다. 10개 계열사에서 선발된 대리·과장급 22명을 대상으로 1년간 총 7차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문제해결, 글로벌마인드, 창의력, 혁신 활동, 전략경영 시뮬레이션 등 각각의 테마를 중심으로 2~3일간의 워크숍 형태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했으며, 2008년 4월 베트남과 태국에서 실시된 2차 워크숍에서는 한국 합작기업을 견학



챌린지 리더 비즈니스 문제해결 내용 발표(2008년)
차세대 리더 양성과정(2010년)

하던 중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보고 협상을 벌여 납품까지 이어가는 열의를 보였다. 제1기 교육은 2009년 3월 20일 1년간의 오프라인 과정을 종료하였으며, 1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1년의 온라인 교육과정과 반기 1회의 오프라인 교육을 추가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세아는 2009년 2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성과관리 우수자 교육의 명칭을 ‘챌린지 리더’로 바꾸어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후 매년 챌린지 리더를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해나가고 있다.



걸음마 떼고 전력 질주

Pos-SeAH Steel Wire (Thailand) 생산팀

Pos-SeAH Steel Wire (Thailand)(이하 포스세아타이)는 세아특수강이 포스코와 합작으로 설립한 세 번째 해외법인이다. 포스세아타이는 동남아시아 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생산거점 및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2015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여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완공되었다. 법인 설립 후 1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지금, 포스세아타이는 어떻게 변모했을까? 걸음마를 익히고 나면 이내 거침없이 달릴 수 있게 되는 아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 포스세아타이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한다.

글 Pos-SeAH Steel Wire 이웅락 생산팀장

시골벽적 유쾌한 8명의 생산팀원

안녕하세요. 포스세아타이 생산팀의 이웅락입니다. 부서의 이름은 생산팀이지만 저희는 팀 내에 생산, 품질, 설비, 안전환경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있는 스페셜 만능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원은 저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공정 관리 및 스케줄 담당인 Winai, 공정 관리 담당인 Theerasak, 산세 및 부자재 관리 담당 Kasinee, 품질 보증 업무의 Jaksin, 품질 관리 담당의 Songwoot, 설비 관리의 Chaiyo, 안전환경 담당 Sukanya가 있으며, 저는 생산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의 업무 스타일은 '유쾌함'입니다. 늘 시골벽적 웃으며 일하죠. 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큰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농담도 자주 나눕니다. 한 부서 내에 여러 담당이 있다 보니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편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감사를 기회 삼아 한 단계 꺾충

요즘 부서 내의 주요 화두는 고객사 증가에 따른 공정감사입니다. 생산량이 늘고, 고객사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회사도 공정감사를 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태국 업체의 공정 및 시스템 평가가 비교적 까다롭지만 오히려 우리 회사에 대해서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감사를 통해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부족한 점도 보완하며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포스세아타이는 일본계 자동차 회사의 공정감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정감사를 준비하며 작게는 공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품질 시스템, 문서 작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면서 팀원들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세아타이는 이제 발걸음을 딛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늘 새로운 도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 설립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듯 앞으로도 더욱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부자재 구하기 쉽지 않은 태국

태국은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는 회사 경비실에 강한 번개가 쳐 공장 전체가 정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복구되어 물적,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그 순간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태국 내 법인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바로 원/부자재 조달입니다. 공급처 및 납기, 공급 품질 등 여러 면에서 한국보다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들을 구할 수 없거나, 원/부자재 조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태국 현지

업체를 찾기도 하고, 재고 관리 강화 등 손실 절감 활동을 병행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품질과 납기를 무기로 고객 확보에 주력

현재 저희는 태국 내 입지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과 납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품질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본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하고 균일한 품질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납기는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며 품질과 납기로 고객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태국은 시장규모로만 보면 연간 2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90% 이상을 일본계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의 특성상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가전업체들의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서 경제성장률도 높아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태국의 시장환경 속에서 저희는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강점으로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최대 능력 발휘할 것

1년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공장이 막 완공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는데, 번듯한 모습으로 완성된 회사의 모습에 감개무량했습니다.

처음에 태국을 접했을 때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협력과 개척을 통해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결국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아의 도전정신과 열정만 있으면 못 이룰 게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태국 직원들과 협력하여 ISO9001 인증을 자체적으로 획득하며 더욱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가동 초기는 공장의 정상 가동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생산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 손실 부분을 분석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하며, 최적화된 공정 계획으로 최대 생산을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kanya 대리

늘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포스세아타이는 제게 '도전'입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 안됐지만 안전 환경을 맡고 있는 만큼 안전한 회사, 깨끗한 회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추천 태국 음식은 새우 탕 요리인 '남콘 똥양꿍'입니다.



Theerasak 대리

기타 연주가 취미, 한국어 말하기가 특기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5분 바보가 되지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바보가 된다'가 제 좌우명입니다. 태국에 오실 계획이 있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로케트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축제 '방파이'를 꼭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Chaiyo 대리

누구와도 친해지기 쉬운 성격으로 특기는 무예 타이입니다. 설비 관리 담당자로서 포스세아타이를 1년 365일 고장 없는 공장으로 만들겠습니다. 4월 태국에서는 '송크란'이라는 이름의 물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는 호랑이 동물원인 '시라차'를 추천합니다.



이웅락 생산팀장

제가 생각하는 포스세아타이는 새싹입니다.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포스세아타이가 동남아시아 CHQ 와이어의 전 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제 좌우명이며, 추천하는 태국 음식은 계란, 고기 버섯을 넣은 나뭇잎 주먹밥 '뽕장'입니다.



Jaksin 과장

독서와 정원 가꾸기가 취미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회사, 포스세아타이는 제게 '아들'과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태국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품질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추천 관광지는 경치가 아름다운 바닷가 '코시밀란 팜'입니다.



Winai 대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여행 사진 찍기가 취미이며 '발전하기 위해 배워라'가 생활신조입니다. 태국에는 '따까뎀'이라는 벌레 튀김 음식이 있습니다. 태국에 오시면 한번쯤 도전해보세요. 매년 7월 열리는 소 축제 '우본라자 타니'도 추천합니다.



Kasinee 사원

태국의 문화와 음식으로 치앙마이 풍등 축제와 두리안 빙수를 추천합니다. '성공은 마지막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그 카운트를 계속하는 것은 용기이다'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용기와 거듭된 도전으로 포스세아타이를 모두가 행복한 공장으로 만들겠습니다.



Songwoot 사원

'성공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고 값진 자가 되려'가 좌우명입니다. 치앙마이의 대표 관광 명소로 타페 권투 경기장을 추천합니다. 한국이 치맥으로 유명하지만 태국의 닭 튀김 요리인 '흠뽐'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일터를 명소로 가꾸는 지속적 혁신

세아제강 포항공장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 TF팀



눈으로 보고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 새로 들여놓은 듯 말끔한 설비, 군더더기 하나 없이 잘 정돈된 작업 환경, 공장 바닥 마저 반들반들 윤이 나는 이곳이 40년 가까이 사용해온 공장이라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 TF팀을 만나 노후화된 공장을 새 공장처럼 변신시킨 마법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래된 공장의 획기적인 변신

오래 ‘공장’이라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기름 때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도 아닌 이곳은 명소 활동을 통해 몰라보게 달라진 세아제강 포항공장이다.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38년 역사를 거치며 노후화된 설비가 제 모습과 기능을 다시 찾고,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었죠.” 공장혁신팀 이희대 팀장이 명소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떨어지는 활동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터를 ‘명소’로 가꾸자는 취지에서 혁신 활동의 이름도 ‘명소 활동’이라고 지었다. 활동 구역을 하나씩 정해서 오염을 제거하고, 겹겹이 칠해서 두꺼워진 도색을 모두 벗겨냈다. 작업에 걸림돌이 됐던 군더더기 요소들도 모조리 제거하자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던 작업 환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새롭고 특별한 활동만이 혁신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5S 활동인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의 과정을 통해 설비의 기능 복원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애사심 함양은 물론 생산 지표의 향상을 일궈낸 것이 명소 활동의 혁신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명소 활동 완료 후 초기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포항공장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이희대 팀장은 말한다.

작업 환경 개선이 생산성 향상으로

“명소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명소가 된 이후의 현장은 5S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생산팀 박기성 팀장은 ‘명소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참 많다’고 말한다. 작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사라지자 물류 흐름이 개선됐다. 무엇보다 설비의 불가동이 현저하게 줄었다. 가동률이 높아진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불량률도 내려가며 품질도 개선되는 등 많은 부분의 지표가 향상됐다.

뿐만 아니다. 이희대 부장과 박기성 팀장을 비롯해 공장혁신팀의 박형우 대리, 물류팀 김춘길 팀장, 품질경영팀 박춘섭 팀장, 소경 1공장 송상열 팀장과 송성영 팀장, 설비보전팀 신종철 팀장, 설비팀 전재택 사원은 명소 활동 팀원으로서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금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전재택 사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라며 수상의 영광을 모두의 공(功)으로 돌린다.

“힘들었던 만큼, 노력한 만큼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 팀장도 이렇게 말하며 ‘명소 활동을 통해 탈바꿈한 설비 곳곳이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인다.



가장 큰 변화는 구성원들의 마음가짐

처음부터 명소 활동이 착착 잘 진행됐던 것은 아니다. 2012년에 명소 활동을 도입하며 KSA(한국표준협회)의 지도를 받았고, 2013년까지 모델 활동을 시행했지만 이후로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에 권병기 대표가 포항공장장을 맡으면서 명소 활동이 불 붙기 시작했다.

“리더의 강한 의지와 솔선수범을 구심점으로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든 결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큼니다.”

이희대 팀장이 힘주어 말한다. 각 공장의 팀장들이 먼저 나섰고, 뒤를 이어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명소 활동이 활기를 띠면서 언제부턴가 각자 모두가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여 옆에 누가 와도 모를 정도였죠.”

송성용 팀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전한다.

2015년 12월, 드디어 소경1공장이 최초로 전 구역 명소 인증을 완료했다. 1978년 준공한 소경1공장이 38년만에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제2준공식’도 거행됐다. 이후 이를 도화선으로 명소 활동은 전 공장으로 수평 전개됐다.

“공장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는 구성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힘이 전파되며 명소 활동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형우 대리는 쾌적해진 작업 환경으로 인해 구성원 스스로의 자존감과 일터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진 것을 명소 활동의 가장 큰 효과로 꼽는다. 환경이 달라진 만큼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 명소 활동 시행 후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성원들이 수시로 청소 점검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담당 설비와 근무하는 공장에 애착을 가지게 되어 이전보다 더 철저히 설비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먼저 지어진 소경1공장이 제2준공도 가장 먼저 해야겠다는 의지로 명소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하는 송성열 팀장. 그 역시 ‘지금도 시간만 나면 명소 유지와 관리에 힘쓰는 현장 직원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전한다. 물류팀 김춘길 팀장도 ‘혁신 활동을 수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결국 혁신은 개선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았다’고 고백한다.

우리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세아제강 타 사업장을 비롯해,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여러 계열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포항공장의 명소 활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서로 잘 하는 부분은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받으며 명소 활동이 그룹 차원의 활동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문덕공장을 마지막으로 포항공장 전 구역의 명소가 완료되는데,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명소 활동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개선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이희대 부장. 품질경영팀의 박춘섭 팀장 역시 ‘힘들게 이루어낸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설비보전팀 신종철 팀장도 ‘30년 이상 되어 전기 부품이 단종된 일부 설비를 개선, 개조하여 불가동 없는 설비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혁신 활동은 누가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희대 부장의 말처럼 그와 팀원들, 포항공장 구성원들은 결코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 포항공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되는 이유이다.



물보다 진한 혈연의 정 세아 ESAB 생산팀 김경준, 김인수 형제



왼쪽 ESAB 생산팀 김인수 사원 오른쪽 세아 ESAB 생산팀 김경준 팀장

동생이 형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비단 입던 옷과 읽던 책, 가지고 놀던 장난감만이 아니다.
물보다 진한 혈연의 정(情)과 긴 세월 두고두고 이야기할 추억을 나누는 사이. 평생 선배와 후배처럼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이. 형제란 그런 관계다. 세아 ESAB 생산팀의 김경준, 김인수 형제처럼 말이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경준 팀장(이하 형) 1995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현재 생산팀 후처리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끝을 보는 성격으로, 취미는 스크린 골프이며 올해 목표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김인수 사원(이하 동생) 2000년 말에 입사하여 세아 ESAB에 근무한 지 어언 17년째네요. 형과 같은 생산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작년인 2015년에 형은 20년 근속상을, 저는 15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

형제가 세아 ESAB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사연을 소개해주세요.

형 22년 전, 현재 전처리 공정에서 근무하는 오경수 팀장의 소개로 입사했습니다. TPM, 5S 활동 등 개선 활동 경력을 살려 세아 ESAB에서도 주로 개선 활동을 주도했죠. 이후 2000년에 코일 절단 설비를 교체하며 관련 기술 인력을 충원하게 됐는데, 마침 동생이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작업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입사를 권유했습니다.

동생 형의 제안을 듣고 고민도 했죠. 하지만 당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판단 끝에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형을 매일 같은 직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도 같이하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늘 붙어 다닙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바로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형/동생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형 저희 형제는 2남 2녀입니다. 가정 형편상 어려서부터 많이 떨어져 지냈죠. 특히 누나와 여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타지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남동생 인수가 더 애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인수는 제게 늘 막내 동생입니다. 같은 직장에서도 회사 생활을 함께하는 동료이자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동생 어려서부터 형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라 했어요. 형은 스포츠 만능이라 운동이란 운동은 모두 형에게 배웠죠. 수영도 가르쳐주고, 겨울이면 썰매도 만들어주는 멋진 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영으로 연못을 가로지르는 형을 따라 하려다 물에 빠졌던 일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형이 저를 구해줬죠. 한마디로 형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세아 ESAB에 함께 근무하는 것 외에 두 분이 함께하는 활동이 있나요?

형 거의 모든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도 같이 하다가 지금은 골프를 같이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전국 스크린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전국 예선을 거쳐 동생과 함께 경남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형제가 같이 선발되기란 매우 드문 일이죠.

결과적으로 우승은 못했지만 형제가 한 팀이 되어 전국 결선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한국 KPGA 프로 자격증을 목표로 삼아 연습하고 있으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동생과 같이 전국 우승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동생 어린 시절부터 형은 뭔가를 배우면 꼭 제게도 전수해줍

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은 제게 가르침을 주는 멘토 같은 존재죠. 같은 팀으로 경기하기에 형처럼 좋은 파트너가 없습니다. 형도 저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룰 때보다 형과 함께하면 부담도 덜 하고, 형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더 편해서인지 경기 결과도 좋게 나오고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형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힘들었는데 누나와 여동생은 서울에 있어 자주 오지 못하고 주로 저와 동생이 병간호를 했었죠. 당시 힘든 내색 없이 몇 년을 참고 견뎌준 동생이 참 고마웠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게 여겨지더군요. 힘든 나날을 같이 보내준 동생을 보며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생 항상 느끼죠. 무슨 일을 하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니까요. 특히 제가 지난해 담석 제거 수술을 했는데 형이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형이 따뜻한 말을 건네니 고마운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이게 형제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아 ESAB에 근무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형 ‘한길 한가족’ 정신입니다. 한길 한가족 정신은 사원과 회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처음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새겨진 세아 ESAB만의 문화입니다. 지금 경영 환경이 몹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사원들이 저마다 조금씩 양보하고 개선하는 ‘한길 한가족’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마음이 있어 모두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생 제 생각도 형과 같습니다. 힘들 때 서로 지탱해주고 응원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회사 생활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아도 모두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은?

형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형제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삶을 살자. 파이팅!

동생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 아프지 말고 늘 행복하게 삽시다.



세아창원특수강의 보안 우리가 책임집니다 가이드메이트

어깨에 찬 견장이 늠름하다.
방패 모양의 배지도 든든한 믿음을 준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호루라기를
크게 불며 달려와 줄 것만 같은 이들.
세아창원특수강의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가이드메이트를 만났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시작부터 함께

누구든지 세아창원특수강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이들을 거쳐가야 한다. 밤이든 낮이든 철통 같은 보안으로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들.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세아창원특수강의 보안은 가이드메이트가 수호하고 있다.

“2015년 3월, 세아창원특수강의 시작과 함께 가이드메이트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가이드메이트 황성국 부장이 말한다. 가이드메이트 구성원 대부분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세아의 가족이 될 때부터 함께였다. 그리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가이드메이트는 줄곧 세아창원특수강의 안전을 수호하는 사명을 띠고, 보안, 경비 및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예화된 경비 인력의 든든한 수호

현재 가이드메이트의 구성원은 모두 33명. 이 중 보안직 근무자인 27명은 청원경찰 신분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다’급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시설 경비에 일반 민간 경비가 아닌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한다. 27명의 청원경찰은 9명이 1개조를 이루어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아창원특수강 내에서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따라 질서 유지와 보안 분야 관리 등 경찰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체포나 수사를 하지는 않지만 무단 출입자 색출을 비롯해 중요 시설 순찰과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거동이 수상한 자가 있으면 제압을 해서 경찰서에 신변을 인계하는 등 공장 내에서는 경찰과 다를 바 없다. 교통 정리를 위한 수신호, 내방객 안내 접수 등의 업무도 맡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안직 근무자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은 운영 관리 외 문서 수발, 임원 및 업무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24시간 순찰로 빈틈 없는 보안체제

20만 평에 이르는 세아창원특수강을 수호하는 일이 결코 만만할 리 없다. 가이드메이트는 정문과 후문 외에도 대경공장을 주요



경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 담당 주임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24시간 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상시 근무자가 정문과 후문 및 대경 공장 초소에 배치된다. 과속 차량 단속도 주요 업무 중 하나. 세아창원특수강은 물류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장 내 차량 운행 속도를 2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차량 정보는 안전 환경팀에 통보되며, 한 달간 차량 출입 통제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 통제도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 꼭 규정 속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국 부장이 신신당부한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안전 기해

야간에는 각 공장별 주요 초소에도 근무자를 배치하여 방범 태세를 강화한다. 일반 오피스 빌딩이나 관공서 경비 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는 빈 건물을 지키게 되지만 야간 작업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야간 보안 업무는 더 강한 사명감이 필요하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가의 원자재 및 제품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그래도 세아창원특수강의 가족으로서 함께 일하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가이드메이트 구성원들의 연령은 27세부터 59세까지 다양하다. 아버지뻘, 아들뻘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 젊은 친구들이 걸 그룹 이야기를 나눌 때는 가끔씩 세대 차이도 느낀다. 하지만 그보다는 경험 많은 경력자들과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함께 근무함으로써 경비 업무에 더 완벽을 기할 수 있다. 이들은 주짓수, 합기도 등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 기술을 함께 배우거나, 서로 가르쳐주며 허물 없이 지내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안심 또 안심

“협력사의 작은 애로 사항에도 항상 귀기울이고, 해결해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과 함께 생활한 지도 두 해가 넘었다. 그간 날마다 세아인들을 지켜본 황성국 부장은 ‘늘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세아인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와 인간미를 느낀다’고 말한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세아창원특수강 직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노력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황성국 부장은 ‘그런 만큼 더 철저하게 보안 경비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보안 업체는 제일 먼저 고객을 대하는 만큼 항상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메이트는 회사 재산의 보호와 질서 유지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세아창원특수강 임직원은 물론 내방 고객들이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보안시설 관리업체로서, 정예화된 숙련 인력의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회사의 재산 및 중요시설을 보호하며 세아창원특수강이 세계 제일의 특수강 전문회사로 성장하는데 함께하고 싶다는 가이드메이트 사람들. 이들의 철통 같은 보안과 빈틈 없는 경비 덕분에 세아창원특수강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참 든든하다.



우리 가족의 상큼 달콤한 시간 과일청 만들기 체험

세아베스틸 미래전략팀 전남철 차장 가족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등 가을을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신선한 햇과일이 넘쳐나는 가을을 맞아 세아베스틸 미래전략팀 전남철 차장 가족이 과일청 만들기에 나섰다.



하루가 다르게 큰 아이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설고당.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과일 냄새가 먼저 가족을 반긴다.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더라고요. 지금의 순간들을 기록해 놓고 싶고, 가족이 함께 멋진 추억도 만들고 싶습니다.”

이날 체험에 참가한 이유에 대해 세아베스틸 미래전략팀 전남철 차장이 이렇게 말한다.

얼마 전 학교 과제로 ‘아빠는 철 회사에 다니십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쓴 첫째 서진이. 전 차장은 그 글을 본 후 ‘아이들이 아빠 회사 사보에 나온 모습을 나중에 커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주저 없이 이날 체험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의 삼 형제

부부와 아들 셋. 전남철 차장의 가족은 이렇게 다섯 명이다. 너도나도 심각하다고 말하는 저출산 문제는 이 가족에게 그야말로 남의 얘기. 똥망똥망한 9살 큰아들 서진이와 다정다감한 둘째 우진이, 개구쟁이 대장 하진이까지 삼 형제가 있어 ‘절대 심심할 일 없는’ 다복한 가정이다.

“서진이는 책임감을 갖고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는 든든한 장남입니다. 아빠가 없을 때 종종 동생들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는 자상한 형이기도 하고요. 우진이는 배려를 잘 하고 속이 깊어 엄마아빠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기특한 아들이죠. 막내 하진이는 애교가 많아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 가족의 홍일점인 아내 안소현 씨가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한 명 한 명 소개해준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세 아들의 성격과 취향은 저마다 다르다. 서진이의 꿈은 화학자. 그래서인지 요즘 ‘화학반응’에 관심이 많다.



이것저것 섞어보고, 열려보며 다양한 실험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삼푸와 식혜를 섞기도 하고, 주스와 물감을 섞어 냉동시키기도 해요.” 소현 씨는 아들의 실험을 단순한 말쑥이 아닌 호기심 어린 탐구 활동으로 인정해준다. 미소가 멋진 아이, 둘째 우진이는 공룡과 곤충에 빠져있다. 집에 TV가 없어 공룡이 등장하는 만화 영화를 유튜브로 찾아서 본다. 그런가 하면 하진이는 만화 영화 ‘미니 특공대’의 세계가 실존한다고 믿고 있다. 웃음이 많은 아이, 하진이는 잠꼬대도 웃으면서 할 정도라고. 세 아이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어우러져 놀기도 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로맨티스트 남편과 커리어 우먼 아내

“아내는 회사에서 1년에 1~2명에게만 주어지는 우수 사원 표창도 받은 재원입니다.” 세 아들 자람에 이어 아내 자람에 나선 전남철 차장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뿍 담겨 있다. 커리어 우먼인 동시에 아들만 셋인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예쁜 며느리. 이런 소현 씨에 대한 세 아들의 사랑도 각별하다. “우리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피자, 떡볶이, 우동을 맛있게 만들어줘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는 엄마가 좋아요.” 서진이와 우진이의 엄마 사랑도 아빠 못지않다. 그런가 하면 소현 씨는 전남철 차장을 ‘로맨티스트’라고 소개한다.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좋은 아빠, 멋진 남편이 되려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참 고마운 남편입니다.” 올해로 결혼 10년차인 전남철 차장과 소현 씨. 두 사람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다. 서로를 편한 오빠 동생으로만 여기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싹텄다.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던 날, 같은 조가 되어 교회 수련회 준비를 함께하던 두 사람은 이날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다. 평소 조금씩 키워왔던 마음이 불꽃처럼 큰 사랑으로 번져가는 사랑의 시작이었다.

방부제 없이 맛 좋은 수제 과일청

“과일청은 따뜻한 차로 마시거나 시원한 에이드, 칵테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날 체험을 지도해준 설고당 황미영 선생님의 설명이다. 과일청은 과육을 설탕에 재워 숙성시킨 것으로, 꼼꼼하게 고른 과일을 제대로 손질하여 인공적 달달함보다 과일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이곳 설고당의 노하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이 알아진 요즘 각종 수제 과일청 만들기가 인기라고 한다. 이날 전남철 차장 가족은 파인애플, 망고, 용과가 들어간 달콤한 맛의 ‘트리플청’과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베리후르츠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과일을 잘게 썰어 설탕과 버무린다. 이때 과일 양의 절반 정

도로 설탕의 양을 조절해야 과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레몬즙을 넣어주면 설탕이 녹으면서 과일과 더 잘 섞인다. 소독한 유리병에 내용물을 담기만 하면 과일청 만들기 끝. 냉장고 야채 칸이나 김치냉장고에서 1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맛 좋은 수제 과일청 완성이다. 숙성 단계에서 과일청이 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뚜껑을 꼭 닫아주는 것이 요령. 과일청을 담은 유리병은 급격한 온도차에도 견딜 수 있는 내열유리 용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사랑과 행복으로 달콤한 에너지 충전

“방부제나 첨가물을 넣지 않아서 안전하고, 좋은 과일을 듬뿍 넣어서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줄 수 있겠네요.” 체험이 끝난 후 소현 씨가 이렇게 소감을 전한다. “요리사가 된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서진이, 우진이도 들뜬 목소리로 소감을 전한다. 직접 과일의 무게를 재고, 과육을 버무리며 체험한 오늘의 과일청 만들기가 제법 즐거웠나 보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처음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아빠 마음도 아이들이 체험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를 하는 마음’ 바뀌었다. “늘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변함없는 지지자, 잔소리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이끌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전남철 차장. 소현 씨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전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온 가족이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 집, 따뜻한 심을 얻고 힘을 충전하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전남철, 안소현 부부. 이들과 사랑스러운 삼 형제가 함께하는 스위트 홈에 과일 향이 향긋하게 더해진다.



<촬영 협조> 설고당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6길 59 T. 010-3354-3374



노력과 열정으로 태어난 천재 모차르트에 대한 고찰

1778년, 22살의 모차르트는 직장을 찾아 파리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그가 다시 찾은 파리는 7살 천재 모차르트를 반겨주던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다. 파리지앵들은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청년 모차르트에게 냉담했고, 모차르트는 6개월 동안 무직인 상태로 지내야만 했다. 천재라고 추앙받던 모차르트는 왜 파리에서 실패했을까?

글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홍성인 대리

‘천재’ 모차르트의 등장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났다. 이 시기는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길목이었고, 당시 유럽은 계몽 군주가 지배하고 있었다. 중세를 벗어나 소위 ‘이성의 시대’를 상징할 존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똑똑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천재’라는 키워드였다.

유럽 각지에서 모차르트가 연주할 때, 시민들이 몰려와서 성황을 이루었던 이유는 모차르트가 당시 중산층의 문화적 욕망을 대변했기 때문이었다. 여덟 살에 이미 교향곡을 작곡하기 시작한 모차르트는 거기에 부합하는 대상이었고,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천재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이다. 천재 모차르트는 그렇게 대중에게 ‘천재’란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된다. 이 말은 모차르트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만을 가지고 클래식 역사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스스로 개척한 음악성

청년이 된 모차르트는 파리에서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했다. 하지만 과거 그에게 쏟아지던 관심과 찬사는 없었다. 청중도 별로 없었거니와 그나마 모인 사람들조차

너무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실 모차르트가 청중에게 외면당한 이유는 단순했다. 그가 독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차르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뮌헨, 만하임, 빈,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을 다니며 당시 유럽의 음악을 모두 섭렵했고, 그곳의 음악들을 기막히게 모방해냈다. 하지만 자신만의 독창성을 찾기에는 어린 천재를 바라보는 주변의 환호가 너무 컸다. 너무 이른 나이에 찾아온 스타 의식이 자신 안에 감춰진 음악을 마비시켰다.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는 하이든의 작품과 닮은 곡이 너무 많았다. 청년 모차르트가 마주한 파리는 그가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보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모차르트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모차르트는 자신이 한 번 휘갈겨 쓴 악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것이 모차르트를 더욱 천재로 부추겼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친필 악보가 하나하나 발견되면서 그 역시 더 좋은 곡을 위해 수없이 악보를 고쳐 쓴 것이 밝혀졌고, 모차르트가 천재성을 뛰어넘는 노력과 열정으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열정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르다

일반적으로 천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천재들은 지능지수가 매우 높고 타고난 재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누가 가르쳐 주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늘 독창적 영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은 천재의 싹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천재가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라는 통과 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자신만의 독창성은 그 후에 찾아오는 선물 같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사상 또 한 명의 천재, 쇼팽이 남긴 말을 기억하자.

“떠오르는 아이디어 중에서 고르고 골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한낱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세아제강



본사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톡톡 웃놀이’시행

세아제강은 9월 6일부터 약 3개월간 본사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톡톡 웃놀이’를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본사 직원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향상시키고자 마련 되었으며 매주 4개조씩 토너먼트 형식으로 웃 놀이 대결을 한다. 웃놀이 판에는 중간에 수행 해야 할 미션이 있어 이를 성공해야 다음 단계 로 넘어갈 수 있으며, 웃놀이 결과는 매주 게시 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세아씨엠



임직원 축구대회 개최

세아씨엠은 9월 11~22일까지 임직원 사내 축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아씨엠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예선부터 함께 참여해 2주간 자웅을 겨루었다. 축구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동료애도 생겼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세아씨엠은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임직원 자녀 대상 여름방학 여학캠프 진행
세아베스틸은 지난 8월 14~18일 경기도 양평 영어마을에서 ‘2017년 여름방학 여학캠프’를 실시했다. 초등학교 4~6학년인 직원 자녀 35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5-day Power ACE English Program에 따라 원어민 강사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나 상황에 따라 영어를 학습했다. 특히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 클래스를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요가, 클럽 활동 등 다양한 참여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학술서 출간 기념 강연회 개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음악미학연구회와 공동 주최로 8월 25일 세아타워 오디오리움에서 학술서 <오페라 속의 미학> 출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오페라 속의 미학>은 모차르트와 바그너를 비롯해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작곡가의 오페라까지 두루 아우르며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의 숨은 의미를 폭넓게 조명한 학술서이다. 이번 강연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작곡과 오희숙 교수는 “오페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아창원특수강



개정규격시스템 교육 실시

세아창원특수강은 8월 24~25일 양일간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ISO/TS 16949 규격이 IATF 16949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교육은 각 부서 표준화 실무 담당 사무기술직 40명을 대상으로 IATF의 규격 요건 학습 후 조별 토론 및 발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오는 12월까지 사내 표준 개정 등 내년 4월 IATF16949 갱신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 실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8월 23~25일 3일간 장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하계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학생들 간 유대 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이 진행하는 정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련회는 ‘꿈의 기록’, ‘백록담 등반’ 등 장학생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가 하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장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아홀딩스

조의
정호현 경영지원파트(빙모)

세아제강

입사
이은경 군산공장 업무지원팀

결혼
이원석 글로벌전략팀
정정현 STS내수팀
이도형 포항공장 생산2팀
강용완 포항공장 공장혁신팀
김원규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이현철 포항공장 생산2팀
전재택 포항공장 설비보전팀

출산
김승현 순천공장 생산팀
신원조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신민철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김세명 수출3팀
박진우 생산계획팀
김양우 생산계획팀

세아베스틸

결혼
김상열 구매1팀

조의
권태영 2차가공팀(부친)
전일하 소형압연팀(모친)
김동철 품질보증2팀(빙부)
황성연 압연설비팀(빙부)
홍학주 대형압연팀(빙부)
이광로 단조사업부(빙모)
고명철 제강파트(빙모)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최남일 강관단조설비팀
김병진 압연설비팀

결혼
최주연 글로벌마케팅팀
이정민 소형압연팀

출산
이준석 2제강팀
유동완 가공팀

조의
최성운 강관팀(모친)
양기준 강관팀(모친)
김종근 강관팀(모친)
함탁중 강관팀(빙모)
이종화 3제강팀(빙모)

세아특수강

출산
송재호 포항 생산팀

조의
정이근 포항 생산팀(빙부)
김현송 포항 생산팀(조모)
배건호 포항 생산팀(조부)
이맹상 충주 생산팀(조부)

세아 ESAB

출산
박성규 시험실
김철홍 경영전략 / SCM

세아 M&S

입사
백현주 경영지원팀
김다현 영업팀
이송희 영업팀

세아메탈

조의
심계열 창원 생산설비팀(부친)

세아 L&S

입사
손설아 판재영업2팀
최윤희 강관영업2팀

결혼
오동근 창녕영업소

조의
이정환 재경기획팀(부친)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유조휘 영업팀

조의
김승태 개발1팀(부친)
윤강준 서비스팀(빙모)

Post Box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세아제강 사원부인회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를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자극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아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 김남숙

사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아 가족 소식을 들을 수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아를 위해 헌신하는 임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지금의 세아를 만들었습니다. 세아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 이장엽

<세아가족> 사보를 보며 세아 직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동참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항상 알찬 내용으로 사보를 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로 하여금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전기영

<세아가족> 사보를 읽으며 세아그룹 가족들이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향해 정진해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즐기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들 말합니다. 서로 함께 도우며, 철강 분야에서 선두 업체가 되는 그날까지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록

선배들을 인터뷰하는 타임머신 코너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세아라는 기업의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준 선배들을 잊지 않고 노고를 연대기 형식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항상 사보 잘 보고 있으며, 뜻 깊은 세아의 역사책이 한 권 더 쌓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다솜

타임머신 코너를 통해 옛 사진들을 보니 긴 역사의 세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더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열사의 땅 중동에서 세아를 위해 일하는 SSUAE 판매팀 여러분,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혜

Quiz <세아가족> 9+10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1 91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 첨단소재 기업의 이름은?

1. 도레이 2. 도레미 3. 도레라 4. 도레시
- 2 지난 8월 15일 준공식을 거행한 Spiral Pipe 제조업체의 이름은?

1. East Coast Spiral Pipe 2. West Coast Spiral Pipe
3. South Coast Spiral Pipe 4. North Coast Spiral Pipe
- 3 9월 20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회'가 열린 도시의 이름은?

1. 충주 2. 청주 3. 전주 4. 원주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김남숙	전북 군산시 구암동	김유록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장엽	전북 군산시 수송동	정다솜	경기 평택시 지산천로
전기영	전북 군산시 소룡동	유승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hyunho.lee@seah.co.kr / 02-6970-0095



We are professional

철에 대한 세아의 실력과 전문성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강관, 특수강, 자동차 부품, 용접재료, 물류, IT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혁신으로 하나되어 움직이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강철같은 실력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세아인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세아씨엠 세아FS 세아ESAB 세아메탈 세아M&S 세아L&S 세아엔지니어링 세아네트웍스